2020.08.19. CPI Bunker

이윤규

한국싱크탱크

1. 인도·중국 국경분쟁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미치는 영향

세종연구소. 이대우. 20.08.18. <http://www.sejong.org/boad/1/egoread.php?bd=3&itm=&txt=&pg=1&seq=5453>

ㅇ 인도-중국 국경문제

* 인도를 식민통치하던 영국은 19세기 말부터 3,488km에 달하는 인도와 중국의 국경 획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인도 독립 이후 인도와 중국(국민당 및 공산당 정부)도 국경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까지도 국경이 확정되지 않고 있음.
* 지난 100여 년 동안 국경이 확정되지 않아, 접경지역에서 인도와 중국 사이 수많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고, 사태 수습을 위한 협상을 반복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음.

ㅇ 라다크(Ladakh) 충돌

* 2020년 6월 15일 인도 북동부 중국과의 국경 역할을 하고 있는 실질통제선(LAC, Line of Actual Control) 중간 지역인 라다크의 갈완계곡에서 양국군이 충돌하여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 발생.
* 라다크 충돌 후, 과거와 같이 양국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황을 수습하고는 있음.
* 그러나 양국은 서로 상대국이 먼저 LAC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접경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어 긴장이 유지되고 있음.

ㅇ 라다크 충돌 후 양국 정책변화

* 인도: 대중국정책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남. 모디 총리의 대중국 강경 발언이 이어지고, 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력 증강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인도 사회에 반중국정서가 확산되고 있음.
* 중국: 비교적 차분한 대응. 그러나 중국은 인도를 협력국이 아닌 경쟁국으로 간주하고, 영토적 야망도 지속되고 있음.

ㅇ 향후 전망: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강화

* 인도의 대중국정책 변화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인도의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전략 적극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략 추진 핵심체인 QUAD(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4개국 안보대화)의 활성화와 확대(QUAD PLUS)가 전망됨
* 그러나 QUAD 활성화 및 확대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충돌하여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음.
* 이런 상황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우리 정부도 인도·태평양전략 지지 및 참여를 통해 한미관계 및 한중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ㅇ 한국에 대한 시사점

* 2020년 5월 발표한 미국의 대중국전략에서 백악관은 미중경쟁이 체제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민주 국가들의 결속을 강조하고 있음.
* 9·11 테러 이후 부시 정부가 ‘미국의 편에 서지 않는 국가는 모두 적’이라는 일방적 선택을 강요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우리 정부도 나름의 원칙에 근거한 입장을 갖고 참여해야 함.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은 상호보완적 성격이 존재함. 자유롭고 열린 인·태 지역 건설은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요.
*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각각 재설정하고 재정립할 수 있음. 한미동맹은 북한 도발 억제에 전념하고, QUAD PLUS가 구축되면 한국은 별도의 기여를 약속할 필요가 있음. 한중관계 재정립은 정치(안보)와 경제를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함. 전략적으로 어렵지만 북한 위협 억제 위해 한미동맹 필요하고 한중 양국의 경제발전 위해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함.

2. 미중 5G 경쟁 2.0과 한국: 다변화 전략과 중견국 외교

EAI. 이승주. 20.08.13. <http://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19909&board=kor_special>

ㅇ 트럼프 행정부의 반 화웨이 제재 강화

* 2019년 5월 미 상무부는 화웨이를 거래제한명단에 포함함. 정부 승인 없이 미국 기술을 화웨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 2020년 5월,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를 더욱 강화함. 외국 기업이 미국 장비와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한 반도체를 화웨이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추가함. 중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자 국가안보를 이유로 첨단 제품의 홍콩 수출을 금지함.
* 2020년 5월 미국의 제재 조치는 미국 장비를 사용하여 반도체를 제조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고강도 제재로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것을 의미함.

ㅇ 중국 경계론의 확산과 미중 5G 경쟁

* 2020년 중국 경계론이 확산되면서 유럽과 인도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음.
* 미국은 2018년, 중국산 장비의 안보 위험을 제기하면서 2019년 3월, 독일에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지 않을 경우 정보 공유를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우방국을 압박함.
* 202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화웨이가 유럽에서 5G 네트워크 구축 계약을 잇달아 수주하는 등 미국 정부의 반 화웨이 전략이 기대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함.
* 그러나 홍콩 문제를 계기로 중국경계론이 등장하며 영국은 화웨이 5G 장비 사용 문제를 재검토함. 이후 관계가 더 악화되며 영국 내에 이미 설치된 화웨이 장비를 6개월 이내에 제거하기로 방침을 정함.
* 독일도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거나 적어도 핵심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 전환을 검토하고 있음.

ㅇ 5G 경쟁과 코로나19의 국제정치

* 반전의 계기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중국 경계론을 강화함.
* 코로나 19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중국은 홍콩 시위의 강경 진압, 신장 지역의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 인도와 국경 분쟁, 남중국해 긴장 고조 등 공세적 외교 수위를 강화함.
* 이는 중국 외교정책에 대한 순응 대신 중국 경계론을 강화함.

ㅇ 미국의 대 화웨이 전략의 지속 가능성

*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제재 조치 지속 여부는 국내적으로 미국 기업, 대외적으로 외국 정부와의 협력 유지/확대 여부에 달림.
* 미국 기업에 대안을 제공하는 조치가 필요함. 화웨이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전면 거래 중단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미국은 단계별 거래 축소와 중단을 추진할 수 있음. 이미 미 상무부는 9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충격이 클 경우 면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힘.
* 애플 및 퀄컴과 같은 기업은 중국 정부의 보복으로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위험이 있음. 애플의 생산 공정은 중국의존도가 높아서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자급도를 높이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핵심 기술과 첨단 산업에서 해외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국제조2025의 목표임. 미국의 화웨이 제재는 중국제조 2025를 촉진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ㅇ 미중 5G 경쟁의 국면 전환

*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화웨이를 제재하며 자국 기업과 외국 정부에 희생과 일방적 동참을 요구했지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함. EPN이 등장함.
* 강경한 홍콩 보안법 통과 과정, 코로나의 세계적 확산 과정에서 중국 경계론이 화웨이 장비의 리스크에 대한 의구심으로 발전함.
* 주요국(독일, 영국, 인도 등)의 인식 변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 협력 확대는 상호작용함.

ㅇ 미국 5G 전략의 입체화

* 현 시점까지 나타난 미-중 간의 5G 경쟁에는 양면성이 존재함. 과감한 화웨이 제재는 미국 기업이 화웨이 공급 사슬 내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여 화웨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취약해서 가능했음. 그러나 미국 기업의 지지를 유지할 방법을 모색해야함.
* 미국은 지금까지 파이브 아이즈 중심의 협력에서 탈피하여 협력 대상을 더욱 확대하려는 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음. 반 화웨이 전선 확대의 관건이 될 것이기 때문임.
*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의 효과를 높이고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EPN과 같은 대안이 필요함. 화웨이 배제 결정을 하는 국가들 사이의 연대를 촉진하고 공급사슬의 재편에 필요함.
* EPN은 미국 기업들에게 중국에서 미국으로 리쇼어링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동지 국가들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대안을 제공함. EPN은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
* EPN에 더하여 미 국무부는 5G청정네트워크(5G Clean Networks)를 추진하겠다고 함. 신뢰성과 보안 수위를 판정할 수 있는 국제적 디지털 신뢰 표준을 수립하려는 것임.
* 미국은 ‘청정 통로’를 의무화하는 5G 청정 패스(5G Clean Path)도 발표함. 화웨이, ZTE 등 신뢰할 수 없는 고위험 판매기업이 이 통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
* 미 상무부는 화웨이가 참여하는 국제 표준 기구에 미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칙을 만들고 있음. 그동안 미 상무부는 이를 금지해왔는데, 이로 인해 화웨이가 국제 표준 설정을 주도하는 결과가 초래됨. 우방국과 함께 5G 국제 표준 설정을 주도하려고 할 것임.

ㅇ 한국의 대응전략

* 단기적으로 한국은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데 따른 반사 효과를 신중하고 기민하게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화웨이 대안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는 것임.
* 공급사슬의 재편을 탈 중국보다 공급 사슬의 강건화와 다변화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기존 공급 사슬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보다 기존의 것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형성되는 공급 사슬을 중국 이외의 국가로 형성하는 것임. 중국과 EPN의 가교 역할도 가능함.
* 중국 주도 공급 사슬의 의존도를 낮추고자 EPN 강화에 참여하며 중국에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불확실성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음.
* 갈등의 지속으로 미중의 상호의존도가 낮아지면 상호 압박 수단이 약화됨. 이는 경제의 안보화를 완화할 수 있음. 미중 양국은 전략경쟁을 지속하며 상호의존을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음. 공급 사슬의 재편을 계기로 상호의존의 무기화에서 관리된 상호의존이라는 새로운 단계로의 전환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비해야 함.
*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나가는 과정의 관리임. 공급 사슬 재편이 과도하게 안보화되지 않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보다 한국과 유사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확대하여 공급 사슬 재편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모색해야 함.